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## 아 테

- 韓,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소동...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구속 기소
  - 9.1 언론은 지난달 17일 SNS에 개인적 앙심으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설치 글을 올려 폭발물 신고 소동을 벌인 배달기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보도
    - ※ 同 사건으로 경찰력 투입 및 폭발물 탐지 작업 진행, 약 2시간여 분동안 영업 중단, 지상 9층 건물의 이용객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부언
- 韓,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구속 기소
  - 9.2 언론은 경찰이 첩보를 받아 이태원의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을 검거했으며, 수원지검이 同 피의자를 테러방지법,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
    - ※ 언론은 同人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UN지정 테러단체인 '라슈카르 에 타이바(LeT)'에 가입한 조직원이라고 부언
- 韓, '2025 APEC' 안전 개최를 위한 밀수 신고 캠페인 실시
  - 9.2 언론은 포항시가 '2025 APEC 정상회의'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으며, 기간 중 총기,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및 밀수 행위 차단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

## 중 동

- 후티 반군, WFP·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 직원들 구금
  - 9.1 언론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UN 세계식량계획(WFP), 유엔아동기금 사무실로 들이닥쳐 10명을 납치했다며 후티 반군은 지난 1월에도 UN 직원 8명을 구금하는 등 '24년 6월 이후로 UN 등 직원 수십명이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
    - ※ 이번 구금은 지난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에 후티 반군 정부의 총리와 각료들이 숨진 직후 벌어졌다 부언

## 미 주

- 美 FBI, 미네소타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'테러·중오범죄'로 수사
  - 8.28 언론은 美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범인이 총기를 난사하여 어린이 2명이 사망하였으며, FBI가 이 사건을 국내 테러 행위 및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중오범죄로 간주해 수사중이라고 보도
    - ※ 美 대통령,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국 내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 계양을 지시하는 포고문 발표
- 美, 워싱턴 내 범죄 소탕을 위해 총기 규제 지시
  - 9.2 언론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총기도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, 「팸 본디」 美 법무 장관은 워싱턴에서 105명을 체포하고 불법 총기 12정을 압수했다고 발표
    - ※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 총기 옹호 단체인 탕에, 이번 총기 규제 조치가 '정치적 연극'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
- 멕시코, 기관총·드론으로 무장한 카르텔에 경찰 대응 부족 논란
  - 9.2 언론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크레모아 지뢰, RPG, 기관총 장갑 트럭, 드론을 폭발물 탑재용으로 개조하여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등 준군사단체 수준에 올라섰으나, 자국 경찰 장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응이 미비하다고 지적
    - ※ 언론은 카르텔의 군사화는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카르텔을 겨냥한 드론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## 유럽

- 英 런던시, 극단주의 대응 프로젝트 지원
  - 8.28 외신은 英 런던시가 청소년들이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오범죄, 극단주의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약 16억 4천만원 87만 5천파운드를 지원하여 비판적 사고 워크숍과 교육 등을 시행한다고 보도
    - ※ 同 사업은 지역단체·학교 등이 참여하여 약 5만 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

## 역사속 테러사건

### 탈레반, 아프가니스탄 공공기관 대상 차량폭탄 테러('16년)

- '16.9.5 아프간 수도 카불에 위치한 국방부와 재무부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탈레반의 복합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해 총 58명이 사망하고 109명의 부상자 발생  
\* 사망자 中 육군 장성(1명)과 경찰서장(1명)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



- 테러범들은 폭탄이 설치된 차량으로 건물로 돌진하여 자살공격 및 포위·인질극을 자행하였으며, 이후 탈레반이 피해 현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테러 배후로 확인
  - 이와 관련, 전문가들은 '출근 시간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복합 자살 폭탄 공격이라는 점에서 연대감과 피해가 컸다'고 분석
    - 또한, 탈레반이 존재 과시의 목적으로 정부 및 안보기관을 직접 타격한 점과 도시 중심에서의 대규모 복합 테러가 발생한 점에 대해 새로운 안보 위협을 준 사건으로도 평가
- ⇒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한 테러의 위험성과 여파를 인지하고 지속 발전하는 新기술에 대한 테러 취약요인 예방·대응책 수립 필요

## 테러 상식

### < 차량폭탄(VBIED) >

- (용어) Vehicle-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, 차량 탑재 급조폭발물
- (목적) 군사기지, 공공기관, 민간 밀집 지역 등 보안이 강한 목표물을 공격
- (특징) ①위장성 - 일반 차량처럼 보이므로 접근성 용이  
②대형피해 - 폭발물 탑재량이 많아 대규모 살상·파괴 가능  
③다양성 - 주차·원격폭파·자살공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
- (주요테러)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트럭 폭발(168명 사망, 680명 부상)  
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차량폭탄 테러(202명 사망, 209명 부상)  
2017년 카불 외교지구 차량폭탄 테러(150명 사망, 400명 부상)